

대학의 이념과 고독*

김 동 규**

주제분류 현대철학, 대학론, 유럽근현대철학, 독일철학, 실존철학

주요어 고독, 자유, 대학, 이념, 폰크툼, 흄볼트, 칸트

요약문

본 논문은 흄볼트의 ‘고독’ 개념이 미래의 대학 이념으로 재구축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흄볼트는 근대 대학의 이념을 기획한 철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철학자로서 이념을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이념을 바탕으로 독일의 교육 정책을 입안·실행하던 실무자이자 베를린 대학의 건립자이기도 했다. 흄볼트는 대학을 지배해야 하는 원리로서 고독과 자유를 제시한다. 언뜻 보았을 때, 고독과 자유, 이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인다. 타자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고독이 자유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흄볼트의 대학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유’에만 초점을 맞추며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고독은 다만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처럼 간주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우선 흄볼트 텍스트 내부에서 논의되는 고독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흄볼트는 대학의 내적 조직 원리로서 고독을 제시한다. 고독이란 학문만을 추구하는 학자의 삶의 형식이자 정조다. 다음으로 법인으로서 대학의 고독을 역사 속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대학은 중세와 근대에 두 번 태어났으며, 자유는 대학 성립의 필수 조건이다. 최초로 근대 대학 이념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9S1A5C2A04083293). 그리고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과제번호: 2019-12-0155).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설계한 칸트는 상위학부와 하위학부의 불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세속적 유용성을 지향하는 국가와 갈등하는 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칸트의 불화는 훔볼트적 고독의 이전 단계이다. 그리고 고독을 외면한 것이 대학의 위기를 초래했던 한 가지 이유임을 밝힌 뒤, 필자는 고독을 학적 창의성의 실존적 정조로서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독이 없는 대학은 바르트식 폰크툼이 없는 죽은 대학이라고 결론지을 것이다.

1. 대학과 고독

‘대학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상투어가 되었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대학 안팎의 경직된 서열 구조, 인문학 및 교양 교육의 쇠퇴,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교육 매체 환경의 변화, 대학의 기업화 등을 거론하며 대학의 위기를 논하는 담론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학의 이념을 다시 묻고 있다. 때때로 과거 이념을 소환하며 그 이념을 되살리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념 실현이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현재 공유할만한 이념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비판(냉소)주의에 매몰되어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를 끈질기게 반추하고 냉정하게 현재를 직시하며 과감히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합의 가능한 지향점으로서 대학 이념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훔볼트의 ‘고독’ 개념이 앞으로의 대학 이념으로 재구축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훔볼트는 근대 대학의 이념을 기획한 철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철학자로서 이념을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이념을 바탕으로 독일의 교육 정책을 입안·실행하던 실무자이자 베를린 대학의 건립자이기도 했다. 대학에 관한 그의 핵심 사상이 피력된 글, 「베를린 고등 학술 기관의 내외 조직에 대하여」에서 훔볼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각각의 대학은 최대한 학문의 순수 이념과 마주할 때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고독과 자유야말로 이곳을 지배하는 원리이다.¹⁾

1) 빌헬름 폰 훔볼트, 『인간 교육론 외』, 양대중 옮김, 책세상, 2019. 149쪽. 이 번역

여기에서 훔볼트는 대학을 지배해야 하는 원리로서 고독과 자유를 제시한다. 언뜻 보았을 때, 고독과 자유, 이 두 개념은 매우 유사해 보인다. 타자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고독이 자유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서 문제는, 대학의 원리와 이념을 제시하는 중요한 맥락에서 훔볼트가 무의미하게 동어반복을 한 셈이 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이후 훔볼트의 대학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유’에만 초점을 맞추며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고독은 다만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처럼 간주되었을 뿐이다.

이미 1960년대 초반에 독일 사회학자 쉘스키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쉘스키는 훔볼트의 대학 이념에 대한 충실한 연구서, 『고독과 자유』(1963)를 출간했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도 관련 주제에 대한 이만한 업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인 저작이다. 그에 따르면, “대학과 대학개혁에 관한 수많은 현재의 문헌들을 일별해 보면, 거의 모든 곳에서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학설과 연구의 자유, 교수와 학생의 자유 등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것이다. 말하자면 ‘독일 대학의 기본권’은 생생하게 주목받고 있다. 그에 반하여 ‘고독’이란 단어는 이들 문헌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주변부에서 어쩌다 한번 언급될 뿐이다.”²⁾ 그런데 과연 훔볼트는 단지 강조하기 위해 동일 내용의 두 개념을 병치시켰

본을 참조하되 인용된 번역문은 필자가 독일어 원본을 보며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Wilhelm von Humboldt(1964). 저자명과 괄호 속 출판연도만 기재한 자료들의 자세한 서지 사항은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참조.

- 2) Helmut Schelsky(1963), 117쪽. 같은 곳에서 쉘스키는 사회학자답게 고독을 ‘사회적 책무(soziale Verpflichtung)’로, 자유를 ‘사회적 권리(soziales Recht)’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 대학 이념에서 고독과 자유는 두 개의 상호연관된 원리들이다. 소위 동전의 두 측면이다. 고독 개념에는 대학의, 학자와 학생들의 ‘사회적 책무’가 담겨 있으며, 자유 개념에는 그로부터 생겨난 ‘사회적 권리’가 담겨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권리에만 관심이 있지, 그 근간인 책무에는 무관심하다. 쉘스키에 따르면, 이런 경향성이 ‘사회적 책무’로서의 고독을 외면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독일 대학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훔볼트의 대학 이념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장체형 교수의 논문(2017)이 잘 정리하고 있다.

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대학론’에서 고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소박한 의문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더 나아가 대학과 관련된 지성사적 맥락에서 고독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본 논문의 목표다.

지금껏 주로 대학의 이념을 논할 때, 교회, 국가, 기업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에만 주목해 왔다. 고독도 자유의 하부 범주로 쉽게 환원시켜 이해했다. 아무래도 고독이란 용어가 (자유와 의미상의 중첩이 큰 데에다)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가리키는 낱말이어서, 대학의 공적 이념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흄볼트가 언급했던 고독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 같다. 작금의 대학의 위기가 어찌면 고독에 대한 외면, 내지 무관심에서 발원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 고독의 의미를 풍성하게 밝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칸트에서 흄볼트까지, 그리고 이후 철학자들에게서 전개되는 고독 개념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대학 이념에 걸맞는 고독 개념의 재구성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2. 텍스트 내적 고독

야스퍼스의 고전적인 대학관에 따르면, 대학이란 “학자와 학생 공동체 속에서 진리를 찾는 과제”³⁾를 부여받은 곳이다. 앞서 인용했던 흄볼트의 말대로, ‘각각의 대학은 최대한 학문의 순수 이념과 마주할 때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학은 학문의 순수 이념, 즉 진리를 찾는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학문의 순수 이념이란 전통적으로 이성을 통한 진리의 발견이며, 대학이란 이런 이념이 구현·관철되는 곳이다. 흄볼트의 관점에서 그런 대학에 반드시 요구되는 원리가 바로

3) Karl Jaspers(2016). 109쪽.

고독과 자유다. 그 둘은 학문의 이념을 만나도록 해 주는 대학의 이념이라 말할 수 있다.⁴⁾ 그렇다면 고독과 자유는 어떻게 학문의 순수 이념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걸까?

「베를린 고등 학술 기관의 내외 조직에 대하여(*Über die innere und äußere Organis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Anstalten in Berlin*)」라는 글 전체의 맥락에서 고독과 자유는 글 제목에 등장하는 ‘내외 조직’의 ‘내부와 바깥(*innere und äußere*)’에 대응한다. 훔볼트가 고등학술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과 ‘학술원’ 및 그 ‘부속기관’이다.⁵⁾ 그런 기관의 내적 조직이란 결국 학자들(교수와 학생 포함)의 관계방식을 가리킨다. 반면 외적 조직이란 고등학술기관 외부에 관여된 기관, 즉 대표적으로 국가 같은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대학을 구성하는 두 축인 고독과 자유는 각각 대학의 안과 바깥, 개인과 공동체(제도)⁶⁾를 조직해 내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통상 고독은 관계의 절단으로 이해된다. 연관들이 끊어진 홀로 됨을 뜻한다. 하지만 고독은 모종의 관계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고독 자체가

-
- 4) 훔볼트가 보기에, 이념(*Idee*)이란 ‘원리(*Prinzip*)’와 ‘이상(*Ideal*)’의 결합이다. 그는 오류를 영원히 방지하기 위한 학문적 정신의 삼중적인 노력을 이렇게 기술한다. 1) 모든 것을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 도출할 것, 2) 모든 것을 하나의 이상에 맞게 만들 것, 3) 원리와 이상을 하나의 이념으로 결합할 것. 시간의 측면에서, 원리(*arche*<*principia*)가 시작을 뜻하는 과거이고, 이상은 현재가 지향하는 미래라면, 이념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영원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대학의 이념이란 대학의 이상과 결부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영원한 이념’이라는 거창한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훔볼트적 이념 이외에도 이념에 관한 교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필자는 소박한 수준에서 이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즉 ‘유한한 이성을 통해 특정 시대 동안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지적 지향점’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책, 153쪽.
- 5)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책, 164쪽. 였긴이의 주석에 따르면, 독일 교육 시스템은 대학 외에도 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과 예술원(*Akademie der Künste*)이 있으며, 전자는 학술 교류를 위해 지명도 높은 학자들 간의 연합체이고, 후자는 예술가들의 교류와 함께 교육 기능을 겸한다고 한다.(205쪽 참조)
- 6) Johan Östling(2018), 165쪽.

일종의 관계방식이다. 쉽게 접근하자면, 즉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서 너와 내가 결정된다. 너와의 사이가 없다면, 나는 나일 수도 없고, 그래서 홀로일 수 없기에 고독할 수조차 없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어원적으로도 고독(Einsamkeit)이 ‘함께’라는 의미소[sam]를 함축한다(sam<Sama<ᾶμα)는 점을 지적한다.⁷⁾ 오직 관계가 깊어질 때에만 고독은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독은 구성원의 단독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조직 자체의 내적 원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고독이란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체제로부터 독립해 … 학문과 연구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삶”⁸⁾의 내면적 원리다. 학문에만 몰입하는 학자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학문 바깥의 일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학문 그 자체만을 위해서’ 연구에 ‘홀로’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매진해도 학문에는 끝이 없다. “고등학술기관의 내부조직에 있어 모든 것이 학문을 아직 완전히 발견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그리고 결코 완전히 발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단히 학문을 그 자체로서 추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⁹⁾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도 유한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유한한 성과를 딛고 끝없이 추구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유한성은 ‘무한히 추구해야만 하는 진리탐구’의 가능 조건이다. 이것은 탐구의 성패가 무한히 반복됨을 함축한다. 이때 학자는 끝없는 탐구의 ‘무한한 과제’ 앞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다.

‘홀로 학문 그 자체만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고독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하나는 학자가 ‘홀로’ 연구에 임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학문 그 자체만’을 위해서 연

7) 마르틴 하이데거(2012), 376-77쪽.

8)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책, 150쪽.

9)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책, 152쪽.

구한다는 의미다. 요약하면, 학문 자체를 위해 그것에만 몰입하는 학자의 고독이 근대 대학의 이념에 속한다는 것이 훔볼트 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학이 학자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학자란 대체 누구를 가리킬까?

통상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대학이 거대해지면서 행정을 또 한 축으로 놓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연구와 교육(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봉사)이 대학의 주요 업무다. 상식적으로는 학자가 연구한 내용을 학문 후속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 말한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라는 전통적인 도제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델이다. 시장 논리가 관철되는 현재의 대학에서는 지식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교수와 소비자인 학생으로 둘의 관계가 이해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훔볼트는 새로운 관계를 제안한다. 학생들도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에 포함된다. 한 명의 학자는 배우는 학생이자 동시에 선생이다.

나아가 중등 교육 기관들이 완결된 지식들만을 다루고 가르치는 것과 달리, 학문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다루고 항상 연구에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고등 학술 기관의 특성이다. 따라서 선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대학의 선생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모두가 학문을 위해 존재한다.¹⁰⁾

대학은 이미 습득된 지식을 단순히 전수해 주는 학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대학 이전까지의 초·중등 교육 기관의 소관 사항이다. 더욱이 대학은 완성된 지식을 소비자에게 파는 지식 상점도 아니다. 차라리 대학이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유한한 지식

10)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책, 150쪽.

을 끊임없이 더 넣고 확장시키는 고등 교육 기관이다. 그런 이유로 선생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수동적으로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은 한 명의 주체로서 지식 생산에 참여한다. 말하자면 선생과 학생은 학문적 진리를 향해 동행하는 동학이다. 그들은 진리 추구의 여정에서 우연히 만나 협력하는, 지식 생산의 고독한 주체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훔볼트식 아카데미한 고독이란 “교수와 학생의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삶의 형식”¹¹⁾에서 빚어진 것이다. 실제로 이런 교수-학생 관계 모델은 학부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에 더 잘 들어맞는데,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원 중심 대학의 효시가 된 것은 고독한 학자들의 공동체라는 대학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3. 법인으로서의 고독

지금까지 텍스트 속에서 언급된 훔볼트의 고독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훔볼트 텍스트에 제한되지 않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폭넓게 이 개념을 다뤄 보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독은 통상 자유 개념의 동의어로서 이해되었다. 이런 해석 방향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피상적이고도 획일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풍부한 의미의 축소 및 왜곡을 낳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기존 해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보다는 고독에 방점을 찍으며 대학 이념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만 대학 이념으로서 고독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고독은 한 개인의 정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어법에 맞도록 하려면, 먼저 대학을 일종의 ‘법인’으로 규정할 필요

11) Helmut Schelsky, 같은 책, 91쪽.

가 있다. 여기서 법인(法人)이란 ‘법률상의 인격’이라는 법적인 의미 이전에 일종의 ‘은유’로서 사유되어야 한다. 이때 은유란 한갓 수사적 기법이 라기보다는 풍요로운 의미를 산출하는 세계 이해방식¹²⁾을 뜻한다. 대학 법인을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빗대는 과정에서 대학의 고독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사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대학은 중세에 시작되었다. 대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도시의 출현과 함께 시작한다. 도시에서 연구와 배움을 위한 조합이 생겨나면서 대학이라는 조직이 출발한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의 자유는 ‘자유로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대학의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요시미 순야는 흥미로운 세 가지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¹³⁾

(1) 대학은 두 번 태어났다. (2) 대학은 미디어다. (3) 대학은 자유를 의미한다

첫 번째 관점은 대학의 역사적 고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학은 중세 도시에서 처음 태어났다가 16세기 대항해시대의 세계화와 기독교 사회의 분열, 그리고 인쇄술 발명에 따른 정보폭발로 말미암아 중세 대학은 점차 사멸한다. “기독교회가 분열하여 싸우게 됨으로써 교회의 권위가 현저하게 저하된 것은 대학으로서는 큰 손실이기도 했다. 더욱이 기독교 세계의 분열과 분단의 결과, 유럽 전체가 횡단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명확한 국경선에 의해 영역이 분할된 채 각각의 국민어로 조직된 ‘네이션’이 부상하게 된 것은, 중세적인 의미에서 지식의 횡단적 네트워크였던 대학이 그 기반을 잃게 됨을 의미했다. 바야흐로 도시의 시대가 끝나고

12) G. 레이코프, M. 존슨(1995).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저자들은 은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은유가 이해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실재를 창조하는 기제로 본다.” 244쪽.

13) 요시미 순야(2014), 9-10쪽.

국민국가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¹⁴⁾ 대학이 그럭저럭 명맥은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사라졌다. 그러다가 민족 국가, 국민 국가가 약진하면서 근대 대학이 태어났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탄생 역시 대체 불가능한 단독적 사건이다. 그런 사건은 모두 고독할 수밖에 없다. ‘지식과 신체를 매개하는 장’으로서 대학은 일종의 지식의 미디어다. 대학은 모든 지식이 모여들고 가공되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곳이자, 사회 전반으로 지식이 전파되는 플랫폼이다. 그런데 16세기 이후부터 대학은 미디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일례로 데카르트 이래의 근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출판인들이 더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지성계를 주도했다. 그러다가 국민 국가의 출현 이후, 연구 중심의 베를린 대학이 근대 대학으로서 새롭게 탄생한다. 그때부터 교수가 지성계의 기린야로서 입지를 굳힌다. 요시미 순야는 ‘세계화’와 혁신적 매체를 통한 ‘정보 혁명’이 일어난 21세기가 16세기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탈국가적 이동성’과 (라틴어나 영어와 같은) ‘국제 통용어’가 부각된다는 점은 중세와 21세기의 유사점이기는 하다. 현재 근대적 대학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 국민국가가 아닌 초국적기업이 대학을 지배하고, 대학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인터넷에 지식이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 16세기와 21세기의 특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거점 기반	대학 탄생의 배경	매체 환경
중세	도시	이동성, 초경계성, 탈영역성	수공업적 문자 매체
16세기	국민국가	대항해시대, 라틴어 퇴조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
21세기	글로벌기업	세계화, 영어의 신라틴어화	인터넷 정보폭발

14) 요시미 순야, 같은 책, 81-82쪽.

역사상 자유는 언제나 대학 성립의 필수조건이었다. 세속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유 공간, 강제 없이 펼치지는 지적 토론의 장, 다시 말하자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대학의 사활을 결정했다. 요시미 순야는 매체 환경의 변화가 대학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관점의 도입은 대학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대학이 지식의 생산, 유통, 저장의 공간이며 매체는 지식을 담아 전달하는 도구라면, 매체의 변화는 지식의 생산방식은 물론이거니와 유통 및 저장방식마저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를 둘러싼 대학 안팎의 변화는 이렇게 서술된다.

근대 이후의 대학은 첫째로 교사들이 출판계의 주요한 ‘저자’가 됨으로써, 둘째로 학생들이 출판된 책의 주요 ‘독자’가 됨으로써, 셋째로 대학이 전문적인 도서관을 갖추어 대량의 출판물을 보존하는 반영구적인 수장고가 됨으로써, 마지막으로 대학 자신이 출판사를 설립함으로써 출판문화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18세기까지는 ‘위대한 저자’가 대학 교사인 경우가 드물었지만, 20세기 초반까지의 많은 ‘명저’는 대학에 재직하는 ‘학자’에 의해 집필되었다.”¹⁵⁾

흠볼트적 의미의 대학의 고독은 이미 칸트의 대학론에서 ‘불화’의 형태로 등장했다.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투쟁하는 각각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 칸트는 『학부들의 논쟁』에서 대학 내 철학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는 철학은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분과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수학과 논리학을 포함한 순수 학문과 인문학에 가깝다. 지식의 유래처가 경험보다는 이성, 그리고 실용학문이 아닌 순수학문에 가까운 영역을 뜻한다. 칸트에게 철학이란 기본적으로 (유용성과 무관한) 이성의 왕국을

15) 요시미 순야, 같은 책, 288쪽.

가리킨다. 현상계에만 줄곧 살던 사람이 이성의 왕국이라는 낯선 세계에 진입할 때는 처음 고독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가 역사의 현실적인 맥락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칸트는 중세의 대학부터 중심 교과로 자리 잡았던 신학, 법학, 의학을 상위학부로 존중했다.¹⁶⁾ 주지하다시피, 중세 대학에는 기본 7과목(자유학예, artes liberales)을 가르쳤다. 소위 3학(trivium; 문법, 수사, 논리) 4과(quadrivium; 대수, 기하, 음악, 천문)를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지금의 편제로 말한다면, 학부과정에서는 자유학예를 가르쳤고, 대학원 과정으로는 신학, 법학, 의학을 가르쳤다. 이 세 학부는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통치에 필요한 매우 실용적인 학문들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혼의 안식(신학)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행복한 삶(법학) 그리고 몸의 건강(의학)을 위한 학문들이기 때문이다.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이 셋은 국가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지식, 실용적인 지식을 다룬다. 그렇기에 대학 외부의 영향은 불가피하다. 신학부는 교회의 영향을, 법학 및 의학부는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철학부는 순수기초 학문영역으로서 대학 바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원래 철학(philosophy)이란 말이 특정 분과학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식(진리)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말이고 학문 자체를 가리키는

16)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중세 대학부터 내려온 신학, 법학, 의학은 상위학부로, 자유학예는 하위학부인 철학부로 재편되었다. 하위학부인 철학부는 (기본 7과목을 바탕으로 하는) 주로 비판적 이성애 의존한 비실용적 학문들 전반을 가리킨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18세기 철학부는 자유학예 말고도 16세기 인문학(studia humanitatis)의 잔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볼프강 E. J. 베버(2020), 233쪽. (참고로 이 책의 3장에서 학부에서 학문의 분화 현상을 시기별로 일별할 수 있다). 칸트 자신은 철학부를 두 분과로 구분한다. (1) 역사적 인식 분과(역사, 지리, 학술언어지식, 인문학 등 경험적 인식에 의한 자연지식이 제공하는 모든 것), (2) 순수 이성 인식(순수 수학, 순수 철학, 즉 자연과 윤리의 형이상학). 임마누엘 칸트(2012). 42쪽. 칸트의 이 텍스트에 대한 친절한 소개는 강영안(2008) 참조.

말이다. 그 때문에 철학은 언뜻 무용한 지적 유희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용지용(無用之用)이란 말도 있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산출하는 학문이다. 그리스 시대에 유클리드나 플라톤의 이론은 한가한 이들의 청담으로만 들렸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문명을 낳은 지적 토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⁷⁾ 이런 이유에서 철학은 무용하다는 이유로 대학 외부의 입김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대학 바깥의 국가나 교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 학부조차도 원칙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상위 학부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철학부와의 논쟁을 통해 진리가 검증된 상태에서(칸트는 이것을 하위학부와 상위학부들의 ‘합법적인 논쟁’이라 부른다)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생각했던(여전히 유의미한)¹⁸⁾ 대학의 참된 모습이자 사회적 역할이었다.

칸트적 의미의 대학은 자유인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 사회로부터 일정 정도 격리되고¹⁹⁾ 보호받는 곳이다. 그렇다고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진리와 자유를 위한 살벌한 시험이 엄존하는 곳이다. 그곳은 진리와 거짓, 자유와 굴종을 가르치는 진검 승부의 아레나(arena)다. 치열한 논쟁의 장이다. 원형 경기장에 선 검투사

17) 박동환(2017)에 따르면, “근대적 과학혁명에 기여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논리적 방법의 강점은 실제적 효용치에 타협하지 않은 철두철미한 연역적 일관성의 추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18쪽.

18) 데리다의 번역론으로 칸트의 대학론을 해석한 윤동구(2018)는 ‘현재적 유의미성’을 이렇게 정리한다. “『학부들의 논쟁』을 번역한다는 것은 칸트의 구상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감당해야 했던 책임에 감히 대응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다급한 부름과 호소를 찾아 새로운 대학 제도를 건립함으로써 『학부들의 논쟁』이 맡았던 책임에 화답하는 것이다.” 148쪽.

19) 그렇다고 이 ‘격리’가 외부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치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외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임시 방편의 격리를 뜻한다. “...유럽의 대학은 외부와 단절된 정신적 천체들이 모인 자유로운 자치의 요새가 결코 아니었으며, 이러한 관념에서 출발하는 모든 종류의 현실비판은 따라서 환상적이라는 점이다.” 볼프강 E. J. 베버, 같은 책, 290쪽.

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고독할 수밖에 없듯이, 진리에 헌신하는 학자들의 공동체, 대학은 사회의 여타 조직체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할 수밖에 없다. 훔볼트의 내외 조직처럼 안(상위학부)과 바깥(국가)에서 불화를 빚을 수밖에 없기에 대학은 고독하다.

4. 이념의 위기

고전적인 대학의 이념은 무너졌다. 애써 우리가 외면했을 뿐 붕괴되지 한참 되었다. 이념의 폐허 속에서 대학은 기업이 되었다. “수월성의 대학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초국가적으로 교환되는 자본의 세계에서 또 하나의 기업체다.”²⁰⁾ 이것은 대학 간판을 건 기업체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빌 레딩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일까? 레딩스가 해법을 슬쩍 제시하려 하지만,²¹⁾ 유감스럽게도 큰 설득력은 없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법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대학의 위기에 관해서는 세 가지만 꼽아 보겠다.

대학의 위기는 ‘철학의 위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학에서 철학이 차지했던 역사적 위상의 문맥 속에서 대학의 위기가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철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는 역사가 꽤 된 이야기다. 비단 그것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크론먼은 미국의 대학에서 어떻게 인문교육이 죽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인문학 위기의 원인은 1) 인문학 스스로 학술연구(전문화된 지식연구)의 이상을 자기파괴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며, 2)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20) 빌 레딩스(2015), 74쪽. 자본주의 시대 대학의 실상에 관해서는 Münch(2011) 참조.

21) 그는 폐허가 된 대학을 인정하면서 ‘제도적 실용주의’를 주창한다. 사유의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불일치의 공동체’를 꿈꾼다. 하지만 그의 논의에는 그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기에 실용주의라는 말이 무색하다.

파괴적 문화(문화상대주의, 구성주의, 허무주의)의 소산이자, 3) 근대 이후 과학이 지니게 된 과도한 권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세속적 인문주의 전통이 회복되어야 한다.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이 우리의 대학과 종합대학들에서 존중받는 자리로 회복되어야만 한다. 누구보다 먼저 인문학 교수들 스스로에 의해.”²²⁾ 크론먼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개개 학자의 외로운 각성에 달려 있다. 대학 이념으로서의 고독도 이런 해법과 맞닿아 있다.

대학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와도 연동되어 있다. 교육에 관한 서양 최초의 단어, 파이데이아가 어린아이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철저히 무력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부모는 키워야 하고 교육해야 한다.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지점은 선천적 조산아로 태어나 오랜 시간 동안 교육받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전문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인간이 되는 마땅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의 핵심 내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파이데이아란 자유인, 자유시민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고전학자 베르너 예거는 파이데이아를 이렇게 말한다.

시인들의 창작물이 가지는 교육적 힘은 희랍민족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이었다. 따라서 의식적 교육행위(παιδεύειν)의 대상이 유년기(παις) 뿐 아니라 매우 두드러지게 청소년기까지 확대되었을 때, 그리고 매우 뚜렷하게 인간교육 과정에서 연령제한이 확정될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을 때, 문학작품이 교육의 정수로 통합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제 갑작스럽게 성인 대상의 인간교육도 등장했다. 애초 교육과정 자체만을 지시하던 인간교육의 개념이 객관적·내용적으로 의미 영역을 확장했는바 인간교육(paideia)은 우리의 ‘bildung(Bildung)’ 혹은 라틴움어의 ‘쿨투라(cultura)’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22) 앤서니 T. 크론먼(2009). 201쪽.

되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결과로, 다시 교육내용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민족 성원 혹은 특정 사회계층의 개별 인간이 진입하게 된 교육 세계 전체를 의미하기에 이르렀다.²³⁾

근대에는 자유로운 개인이 출현한 시대다. 이때의 개인은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개개인을 아우르는 말이다. 자유인은 그리스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인간 전체가 자유인일 수는 없었다.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자유인의 자격이 만인에게 용인된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곧장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한 명의 어엿한 자유 시민으로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인으로서의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현실의 인간은 그런 자격과 면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가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창조적인 영역이 요구된다는 말인데, 그런 창조적인 영역의 대표 격으로서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가 제시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대학은 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연구업적 달성을 위해 교육이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진행되는 연구조차도 창의성보다는 가시적인 생산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바우만의 지적처럼 “세계의 불변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과 “인간의 본성 또한 영구한 법칙에 지배받는다는 것”이 고전적인 교육의 전제인데, 유행하는 현대세계는 그 전제를 무효로 만들기에 교육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⁴⁾

23) 베르너 예거(2019), 446-47쪽.

24) 지그문트 바우만(2019), 146-151쪽. 바우만은 지금 시대 교육의 위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교육자들은 인간 역사의 어떤 전환점에서도 이번만큼 어려운 고비와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다. … 우리는 정보로 과포화된 세계에서 살아

마지막으로 대학의 위기는 ‘이념의 위기’다. 이미 대학이 폐허가 되어 버렸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했던 빌 레딩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심장하다.

“나는 동료들과 토론할 때 아직도 ‘진정한 대학에서는...’이라고 시작하는 문장들을 끼워 넣게 되는데, 실은 그들도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아는 것처럼 그런 기관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²⁵⁾

진정한 대학이 고독과 자유가 넘실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대학의 태동기인 중세 때부터 대학은 줄곧 외세의 영향을 받았다. 중세에는 대학을 보호해 준 교회의 영향을, 근대에는 국가의 영향을, 최근에 와서는 기업(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 바깥의 입김을 받지 않았던 대학은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학의 자유 이념을 선양했던 훔볼트조차 대학교수 임명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²⁶⁾했으며, 대학이 국가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가는 기술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더욱 어렵고 역부족인 기술, 즉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가르치는 기술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162쪽.

25) 빌 레딩스, 같은 책, 19쪽.

26) 훔볼트가 교수임명 권한을 국가에 귀속시킨 까닭은 대학 내 교수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유형의 교수만을 뽑는 폐습(대학 내 조직 스스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배치되어야 학문적 진전이 있다고 보았다. “대학에서는 대립과 마찰이 유용하고 필요하며 교수들 간에 그들의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충돌은 무의식 중에 그들의 관점을 변경시키기 때문이다.”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책, 162쪽. 그러나 고부웅 교수에 따르면 훔볼트의 이런 생각도 역사적 현실에서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나치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자나 유대인이 대학교수로 선임되지 못하거나 현직 교수가 대학에서 추방된 사례는 정부의 교수 선임권이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부웅(2018) 80쪽.

자유가 대학의 이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이념은 항상 현실과의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무엇도 이 괴리를 메워주지 않는다. 오직 이념을 품은 단독자적 개인만이 고독을 유지함으로써 그 괴리를 메울 수 있다. 불가능한 이념 실현에 뜻을 둔 고독한 개인만이 창의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세계가 이상과 현실 사이를 이어 주는 가교이다. 대학이란 바로 창의적 학문 활동을 하는 고독한 개인들의 연대 조직이다. 대학이 부활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고독한 단독자들의 연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 이념의 위기는 고독의 부재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흠볼트적 대학 이념의 두 축인 고독과 자유 가운데 고독의 몰이해와 외면이 자유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5. 학적 창의성의 실존적 정조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베푼 티탄이다. 여기서 불이란 이성과 기술 등 지적 능력 전반을 상징한다. 이와 함께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프로메테우스는 지식인, 학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고독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바위에 묶인 채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뜯긴다. 만인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나 홀로 고통을 당한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는 언젠가 결박에서 풀려날 거라고 코로스장이 프로메테우스를 위로하자,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모든 것을 성취하는 운명의 여신이 아직은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지 않았소. 먼저 수많은 고난에 휩 다음에야 나는 이 사슬에서 풀려나게 될 거요. 기술은 필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이오.²⁷⁾

‘기술은 필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이오(τέχνη δ’ἀνάγκης ἀσθενεστέρα μακρῶ).’ 흥미롭게도 하이데거는 나치 협력의 대표 증거인 총장 취임 연설, 즉 「독일대학의 자기주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다. 그에 따르면, 테크네는 기술이기 이전에 일종의 앎이다. 비극 시인의 말에 따르면, 앎, 지식, 학적 인식이 아난케, 곧 운명에 따른 필연보다 더 강할 수 없다. 앎은 운명적인 진리 앞에서는 무력하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앎의 창조적인 무기력(die schöpferische Unkraft des Wissens)”²⁸⁾이라 명명한다. 기존에 없던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앎은 무기력해진다. 참된 학자라면 이런 창조적 무기력을 인정하고, 지식의 한계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하이데거는 학문(더 나아가 독일 대학)의 운명만큼은 지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극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하이데거는 앎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명, 즉 후기 하이데거적 용어로 ‘존재의 부름’이라 보았다.²⁹⁾ 진정한 학자라면 프로메테우스처럼 물음을 던지면서 고독하게 그 운명을 기다리고 묵묵히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

운명이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온갖 데이터와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든 비관적으로 전망하든, 그것은 한갓 추측일 뿐이지 운명이 아니다. 오직 이념을 ‘향해(적극적 자유)’ 자유롭게 분투하는 자유인만이 자신의 운명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하이데거처럼 운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념을

27) 아이스킬로스(2008), 368쪽.

28) Martin Heidegger(2000), 109쪽.

29) 대학과 관련된 이런 해석은 데리다가 시도한 바 있다. J. Derrida(2004), 112쪽. 데리다는 「모클로스(Mochlos)」라는 글에서 칸트의 『학부들의 논쟁』의 자취를 셀링, 피히테, 슈라이허마허, 훔볼트, 헤겔, 그리고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독일 철학에서 찾고 있다. 참고로 모클로스란 일차적으로 육중한 무게의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라는 의미다. 그리고 지렛대를 아래로 눌러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방향 전환점인 받침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데리다는 칸트 대학론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말해야 한다. 유한한 인간에게 불가피한 이념, 그래서 모순투성이라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념을 찾아야 한다. 흄볼트는 그런 이념으로서 고독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에서 학자의 고독이란 무엇을 뜻할까? 일단 흄볼트와 함께 베를린 대학의 기틀을 마련했던 피히테의 말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학자의 삶은 통속적이고 고귀하지 않은 것과의 접촉을 피한다.’
 ‘통속적이며 고귀하지 않은 것’에 학자가 관여하게 되면, 이 ‘통속적이고 고귀하지 않은 것’은 학자를 퇴보시키게 됩니다. ... 상상력(Phantasie)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신성한 것에 대한 취미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통속적이고 고귀하지 못한 것입니다.³⁰⁾

‘통속적인 것’이란 세상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것이다. 학자라면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히테는 학자를 세속화 시대의 성직자로 여기고 있다.³¹⁾ 이런 식으로 학자상을 그리고 있기에, 피히테는 거리낌 없이 ‘신성한 것’을 말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피히테가 상상력을 통해 고독에 접근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학자에게 상상력의 비상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속적인 것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통속적인 범상함은 상상력의 날개를 꺾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비상을 위해서라도 학자는 고독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의(특히 독일대학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성직자-평신도 혹은 성직자-수사(수도자)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것은 이미 중세대학부터 시작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모두 학자(scholar)로 호칭했고, 이들 사이의 차이는 성직자와 평신도 관계와 같았다. 학자는 성직자의 자격을

30) 요한 G. 피히테(2017), 92-93쪽.

31) 쉘스키에 따르면, 피히테의 도덕적 엄숙주의 때문에 대학은 ‘학문적 병영(Wissenschaftskaserne)’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Helmut Schelsky, 같은 책, 99쪽.

부여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성직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방랑하는 학자들은 자신의 배회 규칙을 따랐지 외부의 권위를 따르지는 않았다.”³²⁾ 중세 당시의 학자들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도는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학자들의 이 방랑은 구도자(求道者)라는 이미지와 중첩된다. 오랫동안 서양의 교양과 대학을 연구했던 이광주 교수는 독일 학자 상의 특징과 함께 훔볼트의 고독 개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모든 업무로부터 해방된 고독에 뒷받침된 교수의 자유에는 독일의 학자 상에 특징적인 금욕주의적인 수도사의 면모가 엿보이는 심미적 일면 또한 부각된다. /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를 이상향으로 흠모한 귀족적인 인문주의자 훔볼트에게 학문 연구는 개인의 한가와 고독 속에서 움트는 놀이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훔볼트가 바란, 어떠한 업무로부터도 해방된 자유로운 교수(학자) 상은 지식인 조상의 한 유형인 중세 궁정의 음유시인과 광대를 상기시킨다. 그들처럼 초기 베를린 대학의 교수들도 대학 밖의 사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업무나 이해관계로부터 해방된 내적 왕국에서 오직 바라는 일에만 몰입할 놀이의 인간이기를 염원한 것이다.³³⁾

훔볼트의 고독 개념은 한편으로 중세대학에서 발원된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모습을, 다른 한편에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주의적 전통에서 발원된 여유 있는 자유인의 풍모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피히테가 통속적인 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성스러움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전자의 모습을, 상상력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후자의 모습을 대변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이든 후자이든 창조적인 고독이 요구된다. 즉 기지의 익숙한 세계와는 전적으로 다른 창의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는 학자에게 고독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독 개념의 독일적인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

32) 김동구(2003), 20쪽.

33) 이광주(2015), 687-89쪽.

다. 비슷한 시기의 미국 학자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에머슨 역시 비슷한 취지로 학자적 고독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그는 고독이 자기와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독해야한다고 말한다. 참된 자기와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만이 독창적인(original)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자는 신부를 안 듯 고독을 껴안아야 합니다. 학자는 자신의 환희와 슬픔을 오롯이 혼자서 느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평가가 충분한 척도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학자는 고독하고 과묵해야 할까요? 그래야 자신의 사고들과 친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딴 곳에 있더라도 군중과 자기 과시를 갈망하며 괴로워한다면, 그는 그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시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보지 않으며, 듣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습니다.³⁴⁾

그렇다면 이런 고독관은 18-19세기 낭만주의의 시대적 유산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20세기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막스 베버 역시 비슷한 학자적 고독을 말하고 있다. 베버는 학문의 전문화가 가속화된 시대를 살았다. 그가 보기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문이 전문화되고 있고, 이 전문화라는 흐름은 막을 길이 없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전문적인 지식을 몽땅 책임져 준다 하더라도 개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는 필요할 것이다. 전문화된 지식을 생산하는 학자는 이전의 학자들보다 더 고독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진실로 결정적이며 가치 있는 업적은 항상 전문적인 업적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가족 눈가리개를 일단 끼고서 이 친필 원

34) 랄프 왈도 에머슨(2017), 135쪽.

고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러한, 바로 이러한 판독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자기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학문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학문의 ‘체험(Erlebnis)’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결코 자기 내부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문과는 무관한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비웃음을 당하는 저 기이한 도취, 저 정열, 아울러 네가 그 판독에 성공하는 것을 [보는 데에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이 경과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다른 수천 년이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저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학문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이니, 어떤 다른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열을 갖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³⁵⁾

‘학문과는 무관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학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 비웃음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저 기이한 도취와 정열이 학자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다. 그와 관련하여 학자의 고독은 ‘교수’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명 교수에 따르면, 교수란 원래 고백하고 증언하는 자를 뜻한다. 거짓과 불의가 세상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공론장에 개진하는 자를 뜻한다. “인문이라는 학문의 언어는 원래 고백과 증언의 언어였다. Professor(교수)와 Professional(전문인)의 임무는 Profess(공언, 고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인문학에서 Professor의 원래적인 의미는 지식의 창출이나 기술적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³⁶⁾ 그가 보기에, 대학 몰락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수가 기술자가 되거나 지식 판매자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진리와 양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 대학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실 대학계 내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서보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대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35) 막스 베버(2017), 23쪽.

36) 서보명(2011), 51쪽.

대학을 개혁하자는 소리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현실을 위한 개혁이지 미래를 위한 개혁은 아니다. 또 인간이나 이상이나 진리와 같은 한가한 주제들은 개혁 논의의 의제로도 끼지 못한다. 그런 한가한 주제들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려면, 자본과 시장과 경쟁이라는 이 시대 대학의 우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 대학의 위기는 바로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대학의 이상을 지켜나갈 대학이 있다면 그것은 대학 밖의 대학일지도 모른다. 배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시대를 직시하고 정의의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자본의 시장이 아닌 소크라테스의 ‘아고라’일 것이며, ‘큰 배움’으로서의 대학이 존재하는 곳이라.³⁷⁾

이와 같은 서보명 교수의 해법도 세속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대학의 자유에 집중되어 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면서도 비현실적인 해법으로 들린다. 소크라테스의 아고라가 애초부터 대학이라는 제도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직업인으로서 학문에 복무했던 사람이 아니다. 지식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자유에 언제나 제한을 가했던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었다. 교회, 국가,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³⁸⁾ 서보명 교수는 이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더 주목하고 싶

37) 서보명, 같은 책, 259-60쪽.

38) 이전 4장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대학의 위기가 ‘경제적 토대의 위기’다. 중세에는 교회, 근대에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시장의 기업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런데 교회나 국가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가진 조직인 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동떨어진 조직이다. 현재 대학은 상당 부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한에서 레딩스의 견해, 즉 탈국민국가화로 인한 대학의 종언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소스타인 베블런(2014)에 따르면, “대학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지금도, 이상적으로는 물론 대중의 인식 속에서도, 공동체의 가장 높은 열망과 이상을 가꾸고 돌보는 기관”(56쪽)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Collini(2012) 5장 참조.

은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다이몬의 소리를 들으며 홀로 사색에 빠졌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의 활발한 철학적 교유는 실존적 고독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³⁹⁾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독이란 모든 창의성 발현의 필수 조건이자, 특히 학적 창의성의 실존적 정조라고 규정할 수 있다.

6. 대학의 폰크툼

대학은 처음부터 지식추구를 목적으로 모인 인적 연합체에서 시작했다. 이것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낱말들이 있었다고 한다. 예컨대 ‘유니버시티’는 학생들의 조합을, ‘칼리지’는 교사 조합을 지칭하는 말이었다.⁴⁰⁾ 이외에도 대학 대신에 사용했던 낱말은 스튜디오이었다고 한다. “교사의 주위에 학생이 모였거나 성당에 부설된 유명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집단을 *studia*라고 명명하였다. … 대학교(*university*)란 용어가 *studium*이란 말을 대신하여 사용된 것이다.”⁴¹⁾ 그런데 이 스튜디오(그와 공속된 폰크툼)이라는 말에서 ‘학술적(*academic*) 고독’에 대한 종합적인 위상을 선명하게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흥미롭게도,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⁴²⁾에는 스튜디오(*studium*)과 폰크툼(*punctum*)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스튜디오이란 배워서 알 수 있는 지식을 뜻한다. 즉 지식과 교양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대학이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자 교양을 배우는 장소라는 점에서, 스튜디오는 대학의 표면적인 모습 전체를 대표한다. 반

39) 철학적 토론의 향연에 참석하기에 앞서 길거리에서 홀로 사색에 빠진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플라톤의 『향연』(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5a-b.

40) 요시미 순야, 같은 책, 44쪽.

41) 김동구, 같은 책, 12쪽.

42) 롤랑 바르트(2006), 41-62쪽 참조.

면 작은 구멍, 뽀족한 도구에 의한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 폰크툼은 스튜디오의 낮익음과 익숙함을 깨뜨린다. 혹은 밋밋한 스튜디오에 생기 넘치는 박동을 불어 넣는다. 스튜디오처럼 사진 감상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진 속 폰크툼이 감상자를 급습한다.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서 감상자를 꿰뚫는다. 깊숙이 파고드는 이 아픔이 역설적으로 강렬한 감동을 남긴다. 이를 통해 감상자는 변화되고 사진은 매개로서의 위상을 버리고 사물 자체가 된다. 요컨대 폰크툼이란 앎 속의 신비(무지), 인공 속의 자연, 지적 환상 속의 실재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동시에 작품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이루는 지점이다.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인 스튜디오와는 달리, 폰크툼은 유일무이한 존재자들끼리(사진에 찍힌 존재자와 그것을 바라보는 자) 일대일 만남의 시공간이다.⁴³⁾ 이런 만남은 인식 불가능하여 비밀스러운, 고독한 두 존재의 말 없는 만남이다. 어쩌면 대학의 고독이란 이런 폰크툼과 연관된 말로 추정된다. 대학이라는 건물은 지식의 전당인 스튜디오와 지식의 선행조건으로서 고독한 단독자들의 출몰지점이자 만남의 장소인 폰크툼을 두 기둥으로 삼아 건축된다. 대학에서 스튜디오와 폰크툼,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는 전통적 대학 이외의 곳에서 스튜디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⁴⁴⁾ 그러나 폰크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미래의 대학이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고독이 부각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리해 보자면, 고독이란 홀로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고 타자를 배제하는

43) 폰크툼에 대한 이런 해석은 낸시 쇼크로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는 폰크툼의 시간성을 해석하면서 “요약하면, 바르트는 광범위한 물리적 현실과 맺고 있는 유일무이한 -모든 종류의 이미지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관계를 사진에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낸시 쇼크로스(2019), 231쪽.

44) 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는 거대한 기회이자 위기다. “디지털 교육은 흠볼트의 이상뿐만 아니라 조지 오웰의 경악도 간직하고 있다.” Dräger(2015), 9쪽.

개념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타자를 전제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타자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외적 타자다. 즉 하나의 개체 바깥에서 그 개체와 차이를 보이는 타자다. 다른 하나는 내적 타자다. ‘자기’라는 것이 고정된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면, 기존의 자아를 부정하고 그것에 대립하는 타자적인 자기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고독이란 ‘안팎으로 홀로 됨’을 뜻한다. 외적 타자로부터의 고립이기도 하고 내적 타자로부터의 고립이기도 하다. 두 종류의 타자는 모두 기지(既知)의 타자이다. 기지의 타자들로부터의 고독은 비로소 미지(未知)로 향하게끔 해 준다. 이런 점에서 고독은 ‘미지에로의 개방성’이다. 바로 이 개방성을 가능케 하는 지식의 블랙홀, 즉 폰크툼에서 창의성이 유래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서술한 훔볼트식 대학의 이념을 요약해 보자.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의 공동체라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고독한 학자 개인의 정조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훔볼트식 대학 이념은 현재에도 유효할 것이다. 훔볼트의 대학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볼 수 있겠다.

대 학의 이념	고독	내적 조직 원리	도야(Bildung)	창의적 연구
	자유	외적 조직 원리		창의성 교육
			사회(종교/국가/기업)로부터의 상대적 자유	

참고문헌

- G. 레이코프,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 나익주 옮김, 서광사, 1995.
- 강영안, 「갈등 상황에서의 철학과 철학자의 소명 : 『학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본 칸트의 관점」, 『칸트연구』, 21집, 2008.
- 고부웅, 『대학의 기업화』, 한울, 2018.
- 김동규, 『중세대학의 설립과 발전』, 문음사, 2003.
- 낸시 쇼크로스, 『롤랑 바르트의 사진 - 비평적 조망』, 조주연 옮김, 글항아리, 2019.
- 랄프 왈도 에머슨, 『에머슨의 위대한 연설』, 지소철 옮김, for book, 2017.
- 롤랑 바르트, 『밝은 방』,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6.
- 마르틴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에서』, 신상희 옮김, 나남, 2012.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2017.
- 박동환, 『동양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월의책, 2017.
- 베르너 예거, 『파이데이아 - 희랍적 인간의 조형 1』, 김남우 옮김, 아카넷, 2019.
- 볼프강 E. J. 베버, 『유럽대학의 역사』, 김유경 옮김, 경북대학교출판부, 2020.
- 빌 레딩스, 『폐허의 대학 - 새로운 대학의 탄생은 가능한가』, 윤지관, 김영희 옮김, 책과함께, 2015.
- 빌헬름 폰 훔볼트, 『인간 교육론 외』, 양대중 옮김, 책세상, 2019.
- 서보명, 『대학의 몰락』, 동연, 2011.
- 소스타인 베블런, 『미국의 고등교육』, 홍훈·박종현 옮김, 도서출판 길, 2014.
- 아이스킬로스, 『아이스킬로스 비극 전집』,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08.
-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교육의 목적』, 유재덕 옮김, 처음, 2003.

- 앤서니 T. 크론먼, 『교육의 종말 - 삶의 의미를 찾는 인문교육의 부활을 꿈꾸며』, 한창호 옮김, 모티브북, 2009.
- 요시미 순야, 『대학이란 무엇인가』, 서재길 옮김, 글항아리, 2014.
- 요한 G. 피히테, 『학자의 본질에 관한 열 차례의 강의』, 서정혁 옮김, 책세상, 2017.
- 윤동구, 「대학, 번역, 책임: 칸트와 데리다의 <학부들의 논쟁>」, 『순천향인문과학논총』, 제37권 1호, 2018.
- 이광주, 『교양의 탄생 - 유럽을 만든 인문정신』, 한길사, 2015.
- 장제형, 「빌헬름 폰 훔볼트와 근대 독일 대학의 ‘이념’」, 『괴테연구』, 한국괴테학회, 30권, 2017.
-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오윤성 옮김, 동녘, 2019.
- 플라톤, 『향연』, 천병희 옮김, 숲, 2016.
- Collini, Stefan, *What are Universities For?*, Penguin, 2012.
- Derrida, Jacques, *Eyes of the University: Right to Philosophy 2*, trans. by Jan Plug, Stanford Univ Pr., 2004.
- Dräger, Jörg/Ralph Müller-Eiselt, *Die digitale Bildungsrevolution - Der radikale Wandel des Lernens und wie wir ihn gestalten können*, Dva, 2015.
- Heidegger, Martin, *Reden und Andere Zeugnisse eines Lebensweges (1910-1976)*, hrsg. von Hermann Heidegger. Frankfurt a.M.: Vittorio Klostermann. 2000.
- Humboldt, Wilhelm von, ‘Über die innere und äussere Organis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Anstalten in Berlin’, in *Wilhelm von Humboldt, Werke IV: Schriften zur Politik und zum Bildungswesen*, ed. by Flitner & Giel, Darmstadt, 1964.
- Jaspers, Karl, *Schriften zur Universitätsidee*, Hers. von Oliver Immel, Schwabe Verlag, Basel, 2016.

- Münch, Richard, *Akademischer Kapitalismus - Über die politische Ökonomie der Hochschulreform*, Suhrkamp, 2011.
- Östling, Johan, *Humboldt and the modern German university: An intellectual history*, trans., Lena Olsson, Lund University Press, 2018.
- Schelsky, Helmut, *Einsamkeit und Freiheit: Idee und Gestalt der deutschen Universität und ihrer Reformen*, Rowohlt, 1963.

The Idea of the University and the Solitude

Kim, Dong Gyu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ether Humboldt's concept of 'solitude' can be reconstructed into the idea of the future university. As is well known, Humboldt is a philosopher who made the idea of the modern university. As a philosopher he wasn't just making an idea, but he was also a practitioner who formulated and implemented German educational policies based on that idea, and was the founder of the University of Berlin(*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Humboldt presents 'solitude and freedom' as the principles that should govern universities. At first glance, the two concepts, solitude and freedom, seem very similar. This is because the solitude, separating and independent from the other, is an aspect of freedom. In fact, Studies on Humboldt's thought on university have tended to focus mainly on 'freedom'.

First, I will deal with the concept of solitude discussed inside the Humboldt's text. Humboldt presents solitude as the inner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university. Solitude is a form of life as well as a mood for a scholar pursuing only scholarship. Next, we look at the solitude of the university as a corporation in history. The university was born twice in the Middle Ages and modern times, and the freedom is a prerequisite for university formation. Kant, who designed the idea of a modern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tried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discord' between the upper and lower faculties. Kant's discord is the predecessor of Humboldtian solitude, in that struggling is bound to be solitude. After clarifying that the crisis

of the university may be brought about as a result of the neglecting the solitude, I will elucidate the solitude as an existential mood of the academic creativity. And we will conclude that the university without solitude does not have something like Barth's 'punctum'.

Key words: solitude, freedom, university, idea, punctum, Humboldt, Kant

김동규 E-mail: sorgekim@hanmail.net

투 고 일	2020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20년 10월 14일
게재확정	2020년 11월 16일